여수국가산단 용지 부족 숨통 트이나

여수상의, 정부에 용지 확대 건의
율촌 2·3국가산단 조기 완공
여수~남해 해저터널 예타 면제도

여수상공회의소 등 지역 상공인들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공장용지 확대 등 여수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여수국가산단 야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공장용지 확대 등 여수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올해 1·4분기 지역 기업경기 전망조사(BSI)결과 또한 지난해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여수상의의 정부 건의안 타당성에 힘을 싣고 있다.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박용하 여수상의 회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수산단 활성화를 위한 율촌 제2,제3 국가산단 조기 완공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석유화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공장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며 "여수산단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산업 수요에 맞춰 공장의 신·증설을 하고 싶어도 공장용지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회장은 또 "율촌 제2, 제3 산업단지가 조기 개발되면 공장용지 확보는 물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며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여수상의는 수년째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에 머물러 있는 '여수~남해 도로(해저터널)'의 조기 건설 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요청했다.

여수~남해 도로가 건설되면 80분(52㎞)이 소요 되던 이동 시간이 10분(7.2㎞)으로 줄어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수국가산단은 5123만㎡ 면적에 283개 기업, 2만 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로 연간 생산액이 66조원에 이른다.

산단 입주 주요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계획에 따라 신·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공장 용지가 부족해 사업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8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BSI)를 벌인 결과 기업경기전망조사 수치는 '84.3'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일분기 보다 9.3 상승한 결과다.

BSI는 기업 제조현장의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전 분기에 비해 이번 분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뜻한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여수상의는 이번 조사에 응답한 제조업체의 BSI(기업경기 체감지수)상승 원인으로 석유화학업계의 지속적인 경기호황과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꼽았다.

석유화학관련업체(응답업체 40개)만을 분석한 체감지수는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92.5로 조사된 반면, 일반기업(응답업체 30개)의 경기체감 지수는 73.3로 평균치 보다 낮았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역업체의 기대심리와 낙수효과에 대한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의 체감도가 함께 긍정적인 조사 결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장용지 확대 등 정부 주도 여수산단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면 지역과 국내경제는 물론 국내 석유화학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지속가능한 관광 원년' 적극 추진
관광인프라 대대적 정비…질적 성장 박차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2018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여수시는 올해를 지속가능 관광의 원년으로 삼고 행정력을 쏟고 있다.

바로 '시민·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상생 관광', '정직한 서비스로 믿음 주는 신뢰 관광',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 관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017년 1500만과 지난해 13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여수의 관광정책이 그동안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선 7기 관광정책은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시민 불편도 해소되는 시민·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관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웅천~소호 간 도로개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객 불편 해소와 세계 섬 박람회 유치기반 조성, 섬과 연안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시립박물관 건립 본격화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낭만포차 이전도 본격 추진한다.

2016년 5월 종포해양공원에 문을 연 낭만포차는 여수 대표 관광지로 부상했지만 종포해양공원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쓰레기와 소음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여수시는 낭만포차 이전에 대해 시민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실시, 이전 사업비(5억원)가 시의회를 통과하자 오는 7월까지 거북선대교 하부 부지로 이전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천연의 풍광을 갖춘 여수만의 해안선 정비사업과 관광 콘텐츠 개발 등으로 더욱 아름답고 깨끗한 여수 밤바다를 시민·관광객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만성리 등 해수욕장(5곳)과 공원화장실(9곳)리모델링, 소호동동다리·오동도 화장실 신축 및 주차장 보수, 돌산 백초~거북선 대교 진출입로 개설 등 관광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관광객 만족도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해부터 숙박예약통합시스템 "YEOSU야(夜)"와 "음식 물가정보 공시 앱"을 개발, 정직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했다.

오는 4월부터 운영될 여수관광안내 모바일 앱(아! 여행!)은 관광지와 음식점, 주차장, 화장실 위치 등 주요 관광 정보 제공과 함께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코스를 안내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균형관광개발과 미래관광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여수시 관광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웅천~소호 간 해상교량 건설,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 등을 통해 원도심 중심의 관광 인프라를 도시 전체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특히 올해 4월 여천 도심 인근 종합휴양시설인 안심산 유원지(14만4789㎡(4만 3799평))에 개장될 국내 최초 '공룡 루지 테마 파크'는 관광분산과 지역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모두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시는 루지시설(트랙1.28㎞)과 공룡 테마파크, 야외놀이공원, 초대형 실내 키즈테마파크, 야외수영장 등을 갖춘 공룡루지 테마파크 유치로 12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와 원도심 중심의 관광거점을 화양반도까지 확산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남산공원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여수시민 63%가 선호

1단계 조성공사를 마친 여수 남산공원.

여수시민들은 구도심과 구항, 바다와 섬이 한눈에 보이는 남산공원이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조성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거주지와 연령별로 분류한 시민 514명을 대상으로 공원 개발방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3.3%가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을 선호했다. '관광형 랜드마크 공원'을 선호하는 응답은 36.7%였다.

여수시는 시민 의견에 따라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남산공원 2단계 개발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예암산에 조성 중인 남산공원은 1단계 조성공사를 마친 뒤 2단계 시설물 설치 등을 앞두고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조성과 관광형 랜드마크 공원 조성으로 양분돼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관광형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주장하면서 집행부의 공원 추진 의지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여수시는 의회의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시민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약속했다.

실제로 최근 열린 '남산공원 2단계 조성 방안 공청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관광랜드마크형'으로 개발하자는 의견과 여수시가 직접 투자해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시민 공원형'으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팽팽했다.

'관광랜드마크형' 개발을 주장하는 패널들은 여수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위해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토론회에 나선 시민들은 여수의 실정을 고려할 때 자연형 시민공원이 더 좋겠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산공원 조성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공원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하면서 뜨거워진 논란을 식혔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수시 쾌적한 공원만들기 운동본부는 "압도적으로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을 선택한 여수시민의 선택을 환영한다"면서 "이익을 우선 민간업자의 개발방식보다 공공을 우선하고 주변 지역민들을 배려하는 시민이 먼저인 시 정책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 예암산 정상에 조성 중인 남산공원은 공원진입로 427m와 주차장 100면 등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다. 여수시는 약 2만5000㎡ 면적에 산책로, 조각공원, 전망카페, 광장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세얼굴

"믿음 바탕 시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로"

김 근 여수경찰서장

"시민안전을 위한 치안 확보는 물론 든든한 믿음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신임 김근(56) 여수경찰서장은 "좋은 경찰은 빨리 움직이고 뛰어난 경찰은 먼저 움직이며 위대한 경찰은 마음을 움직인다"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성실한 경찰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서장은 "500여명의 직원 모두 한 마음으로 보기에 좋은 일보다 시민에게 진정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촘촘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 출신인 김 서장은 경찰대학(2기)을 졸업하고 광주 서부경찰서장, 해남경찰서장, 광주청 정보과장과 경비교통과장, 청문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